논어 11편 선진 8장 · 원문·풀이

顏淵死，子曰：「噫！天喪予！天喪予！」

독음 · 안연사 자왈 희 천상여 천상여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가 죽자 공자는 하늘이 자신을 버렸다고 거듭 탄식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顏 얼굴 안 / 淵 못 연 연 / 死 죽을 사 사 / 子 아들 자

曰 가로 왈 / 噫 탄식할 희 희 / 天 하늘 천 천 / 喪 죽을 상 상

予 자기 여 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